

## 4대강 국민 논의기구 구성 '공감'

### 조계종 화쟁위원회 4대강 토론회

#### 정부·여야·시민단체 입장차 극명 국민 논의기구 설치 첩첩산중

정부와 여·야·시민단체가 4대강 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가 커 논의기구 구성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화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여당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야당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사회단체에서 박진섭 4대강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회자로 참석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 논의기구에 대해 "4대강과 관련한 갈등만 해결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새만금 등 그간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 기구를 통해 문제해결이 된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국민 논의기구 설치에는 반대한다. 공사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사가 40% 가까이 진행된 현 시점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진섭 4대강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민 논의기구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 측의 주장은 위원장 도법 스님의 발언 이후 접점을 찾게 됐다.

도법 스님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갈등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부터 민주주의에 충실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갈등과 대립을 그치고 동반자로서 공



4대강화쟁토론회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간 찬·반 격론이 계속 되자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화쟁위원 법등 스님, 법안 스님(왼쪽부터)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존의 방식을 찾자"고 말했다.

이에 이미경 사무총장은 "TV 생중계 등으로 2~3일간 끝장토론을 해 국민들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알린 뒤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현장을 돌며 끝장토론을 벌이자. 당에 들어가 전 관철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모두 국민의 답답한 가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풀어가는 데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법 스님은 "민주주의 방식에 최대한 충실해 오늘 나온 끝장토론, 공론조사 등 의견을 종합하면 평가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가 이웃종교와 함께 4대강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안했을 때 방법이 합리적임에도 명분 없이 반대한다면 정부건 시민사회단체건 강력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단의 명은 결코 서러도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모두 국민의 답답한 가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풀어가는 데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서 소통을 전제로 한 제

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국민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여당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부산대 이병인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불통 상태서 소통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갈등 해결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정순왕후 한 서린 청룡사 문화 <허경 스님> 문명대 교수 책으로 엮어 출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룡사에는 영조 임금이 친필로 쓴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비각과 비석, 현판이 있다. 정업원은 궁궐 안에 있던 법당이다. 왕비나 공주 상궁 등이 궁궐 밖으로 합부로 나올 수 없어서 궁궐에 법당을 지어놓고 기도하던 곳이다. 4대문 밖의 청룡사가 '정업원'이란 궁궐 내 법당의 이름을 갖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조선조 비운의 임금 중 하나였던 단종 임금의 비가 정순왕후이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복위를 시도했던 사육신 사건(1456년) 이후 동대문 밖으로 쫓겨나 청룡사의 비구니(허경 스님)가 됐다.

허경 스님은 매일 청룡사 위 동방 불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영월로 유배간 단종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다. 정순왕비 허경 스님을 동정한 도성의 부녀자들은 푸성귀를 사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 행렬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긴 행렬을 이뤘다.

이에 왕실이 푸성귀 공양을 금하자, 부녀자들은 청룡사 인근에 금남(禁男)의 채소시장을 열어 팔고 남은 채소를 몰래 시주했다. 이 시장이 바로 동묘 남쪽 채소산전으로 일명 여인시장으로 불렸다.

청룡사에는 '자주동천'이라는 샘물이 있었다. 생활이 어려웠던 스님은 웃감을 받아와 이 샘물에서 자주 빛이 나는 약초인 주치를 캐어 물들어 생계를 꾸렸다. 물들인 웃감이 바위에 널려진 청룡사를 두고 사람들

은 '자주동천'이라고도 불렀다.

동방불에 올라 단종을 그리워하던 허경 스님에게 시녀가 돌아갈 시간을 아뢰면, 스님은 "계 있게(거기 그대로 있게)"라고 말했다. 시녀는 '계있게 보살'로 불렸고,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스님의 재를 지낼 때 걸렸던 '계있게보살'의 영정은 지금은 불타서 남아있지 않다.

허경 스님은 속종 24년(1698) 단종 복위와 함께 정순왕후로 다시 복위돼 종묘에 신위가 모셔지고 사릉이라는 능호도 받았다.

이후 영조 임금은 속종 때 복위된 정순왕후 허경 스님의 한 많은 일생을 소상히 들었다. 영조는 정순왕후 허경 스님의 가락한 일생을 기리는 뜻에서 청룡사를 옛 왕실 후궁출신 비구니들의 사찰인 정업원으로 존칭하게 했다. 그리고는 손수 쓴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어필을 내렸다.

한국불교미술사연구회(소장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청룡사의 역사와 성보문화재 등을 총망라한 <청룡사의 역사와 문화>를 출간했다.

책에는 청룡사의 역사자료 뿐만 아니라 석상불상 등 불상, 불화, 불구, 건축 등 문화재에 관한 모든 것이 수록됐다.

한국불교미술사연구회 문명대 소장은 "청룡사는 비구니절로 세워져 비구니절로 계승돼 온 비구니사찰의 산 역사"라고 말했다. (02)3673-3426 조동섭 · 이은정 기자

### 조계종 법규위원회 공식사과

참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의를 빚었던 법규위원회가 공식사과와 함께 문제 발언을 한 A 스님은 자진사퇴기로 했다. 하지만 참고인이었던 B보살의 국가인권위 제소 취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9월 17일 기자회견에서 "16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 사무처장 헤일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A 스님은 회의

에서 '진실규명 의욕이 없었다. 법규위원회·종단·당사자인 B보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15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10여 불교계 단체는 법규위원회에 △법규위원회 공식사과 △해당 법규위원 사퇴 △심문 제한 보호제도 도입 △중양종무기관 내 성희롱 문제 처리기구 설치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조동섭 기자



박준수의 그림 법규경

마음으로 미리 살 곳을 정했다더라도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이 끝이 없고

생각이란 사악하고 편벽됨이 많으니 저절로 나쁜 행실을 불러들인다.



#### 8·9 선지식을 찾아서 통광 스님

아무리 고생할 팔자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자로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요>에서는 한 생각을 일으켜 현현한 관문을 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 2·3 조선불교유신론 100년 소설 만해 스님

추석 연휴로 16면 발행합니다

## 정성들여 만든 불교달력 ▶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12절·미니·다이어리·한지·탁상}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4호 산사로 가는 길



11호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산사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38호 행복달마도 (한지)



30호 나를 다스리는 말 (다이어리)

달력 할인가격표	
국6절(타)	1,900원 ..... 1,400원(200부이상)
4·6 12절	1,600원 ..... 1,100원(200부이상)
차 걸이	650원 ..... 450원(200부이상)
미 니	800원 .....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1,000원 ..... 650원(200부이상)
한 지	2,200원 ..... 1,700원(100부이상)
탁 상	2,700원 ..... 2,200원(100부이상)

•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달력·용품카드로그가 필요하신분은 (051)515-8888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3호 붓다의 메아리



17호 북 많이 받으세요



15호 반야심경



14호 반야동자



20호 홀로있는 시간



29호 들에도 꽃이피네 (미니)



25호 동승일기 (미니)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051)515-8888 H·P: 011-554-2988, 011-879-0889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051)508-0101 E-mail: dongjin8888@naver.com